

# 해남군, 148억원 투입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카드수수료 지원 연중 시행 경제활성화 차원 지원 사업

해남군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해남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 148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대상 수요조사 결과 3년 연속 선호도 1위인 '해남군 특례보증 3중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보증, 이차보전,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제도권 금융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게 된다. 소상공인의 안정 경영을 위해 소규모 점포경영 개선사업과 가업 승계·확장 사업은 3월 중 대상자를 모집한다. 배달 수수료 지원, 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접수 중이며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신규로 세무·노무 온라인교

육 및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상가밀집지역 활성화 지원, 도내 생산전기이륜차 리스료 지원, 중개수수료가 거의 없는 공공배달앱 '막까비' 활성화 사업 등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도 펼쳐진다. 각 지원사업은 별도 공고 후 신청·접수 받을 예정으로 홈페이지, 해남 소통넷 등을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영세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자금 관의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13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2019년 4월 발행을 시작한 이래 누적 발행 4990억원, 판매 4703억원, 환전 4595억원을 달성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올해도 상품권 할인 행사를 비롯해 모바일 QR결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 함평군-파라과이 국제협약 농·축산 분야 상호 협력 교류



함평군은 파라과이 과이라주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축산 분야 상호 협력·발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운영량 군의회 의장, 파라과이 과이라주 바레토 코르테시 카를로스 알베르토 주지사, 과이라주 외교관리부 이등호 장관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농업기술 연수, 농·축산물 가공·유통 등 농·축산업 분야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과 교류를 약속했다. 과이라주 방문단은 협약식에 이어 함평축협 축산물 유통가공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스마트팜시설 등 함평 농·축산 시설을 견학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접수 무안군,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하반기 도입 운영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군민과 혼인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무안군에 거주중인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고 신청자 농가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초청대상은 신청자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이며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다음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결혼이민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안=김행연 기자**



**광양 골약동발전협의회, 구봉산둘레길 환경정화 활동** 광양시 골약동발전협의회가 광양시 해군전우회와 함께 구봉산등산로와 성황천 일대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광양시 제공**

## 농가경영 개선사업 10억 지원 전남농기원, 29개 농가 대상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물가 상승, 기상 이변으로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여건을 극복하고 농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도내 29개 농가에 총 10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농가 경영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발한 '농업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는 8.4%로 2021년 대비 2.0%p 상승했다. 반면 농업생산액은 1.0% 감소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돼 농산업 성장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영농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가 경영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 모델 실용화 사업 △경영기록장 가장 농가 경영개선 지원 △지역특화작목 어께 동무컨설팅 확산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김도의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은 "돈버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 개선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백간재 기자**

## '목포 봉사 헌신' 제라딘 라이안 수녀 아카이빙展

### 전남여성문화박물관 특별전 여성가족재단, 4월 14일까지

목포에서 44년간 봉사와 헌신을 펼친 이방인 수녀의 일대기를 담은 이야기가 특별전으로 열린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에서 '목포에서의 44년, 제라딘 라이안 수녀 아카이빙'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시에는 목포에 정착해 44년간 생활하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온 그의 발자취가 담긴 서양화, 드로잉, 연대표 등 작품이 전시된다. 아일랜드 출신인 제라딘 수녀는 장애인 복지가 전무했던 1979년 목포에 정착해 지적장애인 재활을 위한 '생명의 공동체'를 시작으로 현재의 명도복지관과 관련 기관을 설립·운영했다. 봉사와 헌신으로 살았던 목포에서의 삶은 다사다난 했다. 거주하던 아파트의 부도, 관련 시설 화재 등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애롭고 강인한 힘으로 봉사

전남여성가족재단  
**목포에서 44년** 44 Years at Mokpo-Archiving Exhibition of Sister Gerardine Ryan  
**제라딘 라이안 수녀 아카이빙展**  
2023 **2-22** - **4-14**  
|오라진| 전남여성가족재단 유튜브·네이버 블로그 공식 채널  
|전시장소|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개막식|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14시

와 헌신을 이어갔다. 특별전은 목포대 조은정(미술학과) 교수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 등 7명이 협업한 전시로 라이안 수녀의 희노에 락을 기록하고 새로운 문화예술로 선보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이방인이던 여성이 어떻게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과 성장의 밑거름이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며 "국경을 뛰어넘은 봉사, 헌신, 공동체 정신이 후대에 이어져 우리 삶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여성문화박물관이 지역 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여성문화예술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간재 기자**

## 해남군 고향사랑기부금 1억 돌파... 수도권 기부자 과반

해남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53일 만에 기부금 1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현재 332명이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해 기부금액 1억 60만원을 기록했다. 금액별로는 총 기부자의 78%인 259명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했으며, 1인당 평균액은 30만원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 최대 금액

기부자도 10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0명, 전남 66명, 경기 64명 순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전체 기부자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기부자들이 선택한 답례품으로는 쌀, 해남사랑상품권, 고구마빵, 고구마, 곱창김 순으로 주로 해남의 대표 농특산물을 선호했다. 해남군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억원 달성에 맞춰 해남미소와 함께하는 고

향사랑기부금 1억원 달성 기념 이벤트를 추진한다. 오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해남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해남군 직영소秉물인 해남미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상품권 1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및 해남미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 '엄마나라 말 배움터' 개설 진도군, 다문화자녀 대상

진도군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엄마 나라 말 배움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엄마나라 말 배우기를 희망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로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개강은 오는 3월4일이다. 인원은 중국어반 10명, 베트남어반 20명이다. 교육은 진도군 가족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2시간 운영한다.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진도군 가족센터(061-544-9993)로 신청하면 된다. **진도=백재현 기자**

## 전국 최초 새우란 축제 연다 신안군, 4월14-23일

신안군은 오는 4월14-23일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전국 최초 우리나라 자생란인 새우란 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우란(蘭)이란 뿌리의 마디모양이 새우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국내 자생 새우란은 6종으로 새우란, 금새우란, 한라새우란, 여름새우란, 신안새우란, 다도새우란 등이 있다. 신안새우란과 다도새우란은 신안군 흑산도에서 최초로 발견돼 2009년과 2010년에 세계식물분류학회 품종 등록됐으며 그 중 신안새우란은 2017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됐다. 신안군은 자생란의 보고로 2013년부터 매년 새우란과 춘란 전시를 비롯해 2014년 임자면 대광해변숲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압해읍 분재공원 일원에서 풍란, 석곡 등 자생란 복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축제장에는 30만송이 새우란 전시를 비롯해 새우란 군란지 산책로가 조성됐다. 또 전국단위 새우란 대전을 개최하고 자생식물 보존 및 미래가치에 대한 학술대회도 연다. **신안=홍일갑 기자**